

## IV. 보험회사 경영과제

---

### 1.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

-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함.
-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, 각국의 금융 및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 시행 등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
- 잠재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뿐만 아니라 FY2011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보다 강화된 RBC제도<sup>3)</sup>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비용(cost of capital)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.
- 요구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특성에 대응하는 장기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및 투자형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
- 시장·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,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
- 새롭게 추가된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 및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

---

3)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측정하는 데 비해, RBC 제도에서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보험, 금리, 시장, 신용, 운영리스크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.

- 금융위기 이후 보험수요 견인을 위한 영업실적 위주의 경영 전략과 독립채널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과 같은 요인이 결합되면서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.
- 금감원의 2009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대폭 증가(생명보험: 45.7%, 손해보험: 36.2%)함에 따라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
- 영업실적 위주의 경영전략, 모집종사자의 수당 위주 모집관행 등 불완전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
- FY2010에는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며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판매 규율을 강화하여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.
- 사업비, 보장내역 등에 대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
-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행위규범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, 불법행위에 대한 판매자책임 명확화, 위반자 제재 및 관리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

## 2. 신규 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

- 전통형 보험업무 분야의 성장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조달된 대규모 자본을 활용하여 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.
  - 전통형 보험영업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(사망보험: 2.9%, 자동차보험: 3.2%, 화재보험: 0.2%)
  - 이에 비해 저출산·고령화 요인으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, 투자성과와 연계된 변액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(변액연금보험: 9.2%)
  - 따라서 투자를 통해 성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상품개발, 전문인력, 가격설정 등 관련 인프라를 선진보험회사 수준으로 제고
- 국내 시장에서는 보험시장의 성숙으로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함.
  - 거대한 잠재 수요가 있는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에서의 M&A를 통해 보험영업의 지역적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
- 경기회복의 가시화와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라 신규 영역 투자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험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  - 투자형 보험상품에 특화된 단종보험사, 퇴직연금 전문 보험사, 판매전문사 등 기능별로 전문화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겸업화 환경에서 다른 업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 가능

### 3.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

#### 1) 퇴직연금시장

- FY2009 퇴직연금시장은 계열사의 물량 유입의 효과로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, 향후에는 계열사의 잠재유입 소진과 금융업권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.
  - 퇴직연금시장은 시장선점으로 인한 경쟁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
  
- 근퇴법 개정 예정 및 2011년 퇴직보험·신탁제도의 폐지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적절한 전략전환이 요구됨.
  - 퇴직보험·신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대될 예정이므로 확정급여(DB)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
    -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의 개선 노력도 요구
  
  - 근퇴법 개정을 통해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.
    - 퇴직연금시장에서 DB형을 중심으로 성장한 보험회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시장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제반 영향, 수요자의 니즈 변화 및 자산운용 능력의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응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

## 2) 건강보험

- FY2009 건강보험 시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이전 초회보험료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보험료의 견조한 유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임.
  - 기존 건강보험상품의 메리트 증가로 해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초회보험료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장의 정체현상 시현
- 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반면 손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.
  - 건강보험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변화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
    - 영리병원 도입, 원격진료 허용, 외국인환자 유치업,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체계 정비, 병원경영지원회사(MSO)의 허용, U-헬스의 활성화 등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
  - 이러한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변화는 민영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, 손해율 및 신시장 개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
    -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비영리병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의료시장의

환경변화를 상품구조에 반영할 필요

-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(IT)과 생명공학(BT), 서비스 산업 등이 복합된 U-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며,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중심의 유웰니스(U-Wellness) 분야를 건강보험과 연계시켜 사후적인 리스크관리 중심에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로까지 역할을 확대

### 3) 자동차보험

- 자동차보험시장은 정부의 차량관련 세제지원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.
  - 자동차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상품 간 동질성이 강하며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편
  -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무리한 가격경쟁을 통해 수익극대화보다는 판매극대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영업수지가 지속적인 적자
- 자동차보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무리한 가격경쟁에 앞서 손해율의 인하노력이 선행되어야 함.
  -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수가제도의 개선, 보험사기 감소 및 요율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
-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는 동일 의료행위라도 사고원인 및 진료비 지급주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자동차보

험 손해율을 악화시킬 가능성

- 또한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악화문제가 심각한 상황